

리포터의 창

수능선택과목, 결정은 너의 몫!

첫째의 선택 기준은 ‘좋아하고 잘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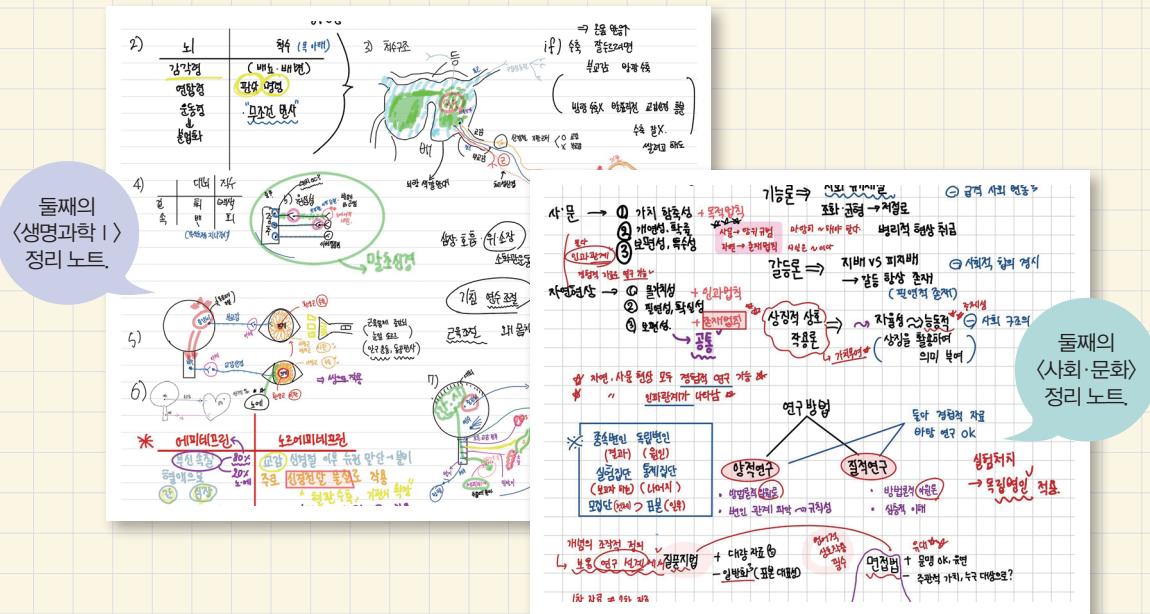
2024 수능을 치른 아들은 어릴 때부터 인문 서적을 좋아하고 수·과학에는 흥미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 성향은 고등학교 때도 변함이 없더군요. 고2~3 일반선택 과목으로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사〉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사회·문화〉 〈정치와 법〉을 들었어요. 내신 공부를 하면서 자신한테 맞는 수능 선택 과목을 찾는다는 계획이었죠. 고2 1학기 중간고사를 끝내고 ‘유레카’를 외치며 〈생활과 윤리〉를 일찌감치 수능 선택 과목으로 정했어요. 수업이 무척 재밌고,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문제를 무리 없이 푸는 점에서 자신감을 얻었더라고요. 남은 한 과목은 ‘비교적 개념이 쉽고 1등급을 받기가 수월하다’라는 주제의 이야기를 듣고 〈사회·문화〉를 택했죠. 수시전형을 바라보고 내신에 충실히 보니, 모의고사 성적도 안정적이었어요.

한데 〈사회·문화〉 마지막 단원에서 수학적 분석과 계산이 필요한 통계, 도표 문제가 등장하자 상황은 달라졌어요. 무척 힘들어하며 고민에 빠졌죠. 결국 3학년 때 내신으로 〈윤리와 사상〉을 배우면서 “수능 탐구 과목으로 제일 잘할 수 있고 재밌는 두 과목, 이른바 ‘쌍윤’으로 결정했다”라고 하더군요. 국어 비문학 지문, 인문 논술과도 연관성이 높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선택했다는 말도 했어요.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찾아 충분히 고민한 끝에 선택했기에 엄마는 옆에서 믿고 응원해줬죠.

‘사탐련’ 열풍 속 둘째의 선택은?

3년이 훌러 이번엔 둘째가 고3이 됐어요. 마지막 선택 과목 수능을 앞두고 있죠. 남매지만 국어 영어 사회를 좋아하는 첫째와 달리 수·과학에 관심이 많은 둘째는 2학년 일반선택 과목으로 〈물리학 I〉 〈생명과학 I〉 〈지구과학 I〉을 이수했어요. 〈생명과학 I〉은 2학년 2학기에 유전을 배우면서 흥미가 더 커졌지만, 공대를 꿈꾸 만큼 좋아했던 물리는 고등학교 내신에서 쓴맛을 보더니 흥미를 점차 잃어갔어요. 〈물리학 I〉을 탐구 영역 선택 과목으로 염두에 뒀지만 그 계획을 수정해야 했죠.

여기에서 2025학년 대입부터 주요 대학이 탐구 선택 과목 제한을 폐지하면서 열풍이 불기 시작한 ‘시탐란’으로 고민은 더욱 깊어갔어요. 딸아이는 2학년 기말고사가 끝나고 서점에서 <마더텅 수능 기출문제집 사회·문화>를 사들고 왔어요. 겨울방학 동안 인터넷 강의를 듣고 문제집 한 권을 다 풀더니 “엄마, 나 결심했어! 내 수능 탐구 선택 과목은 <사회·문화> <생명과학 I>이야!” 라며 ‘시탐란’ 동참을 선언했어요. 이번에도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약간의 ‘넛지’와 응원이었죠.



결심했으면 귀 닫고 전진!

2026 수능이 끝나자 “사문·생명과학 I 어렵고 생윤·지구과학 I 쉽고… 탐구 유불리 발생”이라는 기사가 쏟아져 나왔어요. 모의고사에서 만점을 받던 학생도 예상치 못한 결과에 좌절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1등급 컷이 가장 낮았던 <생명과학 I>은 유전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시간을 요구하는 문항이 늘어 더디워 ‘시간 어택’이 심했다고 하고요. 한데 불안한 건 저뿐인가 봅니다. “엄마, 자꾸 그런 기사들 나한테 안 보여줬으면 좋겠어.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과목을 선택했으니 나를 믿어봐~”라는 딸의 한마디에 반성하게 됩니다. 너의 선택을 응원해!! 🎉